

# 연행로의 지리(地理)와 심적(心跡)

## - 산해관(山海關) ~ 통주(通州) 구간

이승수\*

- I. 머리말
- II. 입관(入關)의 흥분과 임유관(臨榆關) 옛길, 산해관(山海關) - 무녕(撫寧)
- III. 갈석(碣石) 문필(文筆) 원경과 난하(灤河) 풍정(風情), 무녕(撫寧) - 영평(永平)
- IV. 계문란(季文蘭)의 사연과 고려포(高麗鋪)의 비밀, 영평(撫寧) - 풍운(豐潤)
- V. 「호갈(虎叱)」의 탄생과 연소왕(燕昭王)의 회역, 풍운(豐潤) - 계주(薊州)
- VI. 운하(運河)의 장관과 제도(帝都)의 기운, 계주(薊州) - 통주(通州)
- VI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연행로 중 산해관(山海關) - 통주(通州) 구간의 지리를 재구하고, 이 공간에 무형으로 남은 조선 지식인의 마음 자취를 찾아본 결과이다. 산해관은 장성의 동쪽 관문으로, 명나라 이후 중화와 이민족의 경계이자 둘 사이 문명의 통로였다. 여기서부터 북경까지의 거리는 대략 300km로 사행의 이동에는 9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구간은 문명의 중심에 접근하는 흥분과 감격이 고조되고, 새로운 문화의 체험으로 견문의 확장과 지적 성장을 읊미하는, 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문명의 통로였다. 옛길은 많은 부분 현재의 G102 경합선(京哈線) 공로(公路)와 일치한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수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회가 번성하고 문물이 발달하였다. 효율성을 위해 전 노정을 산해관 - 무녕(撫寧) - 영평(永平) - 풍운(豐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潤) - 계주(薊州) - 통주(通州) 다섯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노선을 복원하였고, 몇몇 지점들을 밝혀냈다. 나아가 각 지점 별로 시대와 개인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신들의 관심사를 조명하여, 이 길이 단순히 구시대의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생동감 넘치는 역사의 장소임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현지의 역사지리 관련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여행로를 조감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갖추고자 했다. 이러한 자세는 향후 여행 연구 전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산해관(山海關), 갈석산(碣石山), 이제묘(夷齊廟), 고려포(高麗鋪), 계주(薊州), 통주(通州).

## 1. 머리말

이 글은 근대 이전 북경(北京)을 오간 한중 외교 사행로 중, 산해관(山海關) - 통주(通州) 구간의 지리를 재구하고, 이 지리 공간에 무형으로 남은 옛 지식인의 마음 자취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해관 밖은 1350리나 되지만 주(州)·현(縣)·성(城)·둔(屯)이 겨우 7곳인 데 반해, 산해관 안은 670리에 불과해도 주(州)와 현(縣)과 위(衛)가 14곳이나 된다. 드문드문 멀리 떨어지고 촘촘하게 가까이 붙은 것이 바로 기내(畿內)와 변수(邊陲)의 차이다. 시를 읊조리거나 글을 읽으면서 그 지은이를 알지 못하면 군자가 비루하게 여기거늘,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으면서 그 사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임에랴! 중국에 들어간 동국 사람 중에는 수십 번이나 그 땅을 밟아 오갔으면서도 지역 경계를 몰으면 병어리처럼 대답을 못하는 이가 많다. 나는 이런 까닭에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하여 혹 있을지 모를 길 묻는 사람을 기다린다.<sup>1)</sup>

1) “由山海而外一千三百有五十里，而爲州爲縣爲城爲屯者墜七，由山海而內六百有七十里，而爲州爲縣爲衛者凡十有四。或遠而踈，或近而數，畿內與邊陲異也。夫誦其詩讀其書，而不知其人，君子以爲陋，況觀其容貌，與之談論，而不識其姓名者乎！東人之入中國者，或往來數十遭，終身

1803년과 1831년 두 차례 북경을 다녀온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연행로 상의 지리경계에 대해 남긴 글 중 마지막 부분이다. 이 말을 오늘에 적용해본다. 연행의 역사가 600년이나 되고, 관련 기록이 500종을 상회하며, 연구자들마다 연행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 지리 정황을 알지 못한다면 군자가 비루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옛 사신들은 어느 길을 오갔고, 어디에 머물렀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상상하고 깨달았는가? 본고는 이런 소소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논자는 이 글을 통해 사신들의 이동 경로 및 체류 공간에 대응하는 현재의 지리 정보를 소개하고,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체험이나 정서를 기술하려고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체 구간을 다시 5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었다.

## II. 입관(入關)의 흥분과 임유관(臨榆關) 옛길, 산해관(山海關) - 무녕(撫寧)

산해관의 옛 이름은 임유관(臨榆(榆,閭)關)이었다. 원래 이 지역의 명칭은 임유(臨榆)로, 진(秦)나라 때 요서군(遼西郡)에 설치한 14개 현(縣) 중의 하나였다. ‘臨榆’라는 명칭은 ‘榆水’에서 생긴 것이다. ‘臨榆關’, ‘榆州’ 등 ‘榆’자가 사용된 명칭은 『요사』, 『지리지』에 처음 보이는데, 이후 ‘榆’와 ‘榆’자는 여러 문헌에서, 심지어는 한 책 안에서도 혼용되곤 했다. 건륭 26년에 임유관(臨榆縣)이 설치되면서 지명의 글자는 ‘榆’로 확정되었고, 명칭도 군사용 건축물 산해관과 산해관을 포함한 행정 구역명 임유현(臨榆縣)으로 정리되었다. 산해관이란 명칭은 명초 이 지역에 관성을 축조하면서 거산임해(據山臨海)의 지형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sup>2)</sup> 명나라 『일통지(一統志)』의 “유관(榆關)이 무녕현 동쪽 20리에 있었는데, 홍무 초 서달(徐達)이 60리

跋履乎其土，而問其壤界之何屬，則茫然不能對者衆矣。余是以志之特詳，以娛夫有志於問津者。”

(洪奭周, 『北方疆域志』, 『淵泉文集』 卷25) 홍석주의 연행에 대해서는 김세미오(2006) 참조.

2) 우리 문헌에서 ‘산해관(山海關)’은 1439년(『세종실록』)에 처음 보이며, ‘산해위(山海衛)’는 1389년 권근의 ‘봉사록(奉使錄)’에 가장 먼저 보인다. 권근의 기록에는 유관(榆關)도 나오는데, 여기서 유관은 오늘날 유관진(榆關鎭)을 가리킨다. 당시 산해관과 유관은 다르게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동쪽으로 옮겨 쌓아 산해관이라 했다.”<sup>3)</sup>라는 기록 때문에, 이곳이 본래의 임유(臨渝(榆)) 자리라는 설이 널리 퍼졌는데,<sup>4)</sup> 지리 정황과 이수(里數)로 보아 그 기록은 오류이며 ‘榆關’은 역참 설치 시 이 지역의 옛 읍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5)</sup>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sup>6)</sup>

연행록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기타
石河	石河	秦皇島市 山海關區 石河鎮, 옛 渝水로 추정
五花城	古城 (石河鎮 古城村)	紅瓦店村 동남쪽 1km
紅花店	紅瓦店村 (石河鎮)	
范家莊	范家店村 (秦皇島市 海港區)	秦皇島火車站 소재 마을
深河驛	深河鄉 (秦皇島市 撫寧區)	
網子店	往子店村 (撫寧區)	‘網’과 ‘往’의 발음 같음 * [wǎng]
榆關	榆關鎮 (撫寧區)	
撫寧	秦皇島市 撫寧區	東西南北 大街 (고성의 중심 도로)

산해관은 사행이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를 밟는 곳이었다. 사행은 인마(人馬)의 수효를 적은 단자(單子)를 보낸 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문관과 무반이 열을 이루어 들어갔는데, 세관과 수비관의 지휘를 받는 군사들이 단자와 대조하며 인마를 점검했다. 이는 입관의 관례였다.<sup>7)</sup> 입관 절차를 마친 사행은 대개 관성의 서문 밖에 숙소를 정했는데, 조선후기로 올수록 그 장소가 홍화점(紅花店)으로 특정될 때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사신들에게 체험된 산해관은 문명의 경계이자 통로였고, 천하제일의 군사 장벽이자 중화문명(또는 帝都)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명조(明朝) 위엄의 표상이었다가 멀

3) “榆關在撫寧縣東二十里, 洪武初魏國公徐達, 始徙而東, 去舊關六十里, 謂之山海關。”

4) 조선에도 수용되었다. 한 예로 홍경모, 『耘石外史』, ‘槎上韻語」 「一名臨閭關, 隋開皇間, 漢王諒將兵伐高麗出臨榆關, 卽此地也. 古稱山海關, 元末明初, 城池而毀, 徐中山築於八十里, 今之山海關是也」.

5) 이상은 1927년 속수(續修)된 『임유현지(臨榆縣志)』의 권1 연혁(沿革), 권5·6 여지(輿地), 권7 고적(古蹟)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여기서 임유현(臨榆縣)은 서쪽의 심하(深河)에서 동쪽으로 수중현(綏中縣) 서계(西界)에 이르는 행정구역을 지칭한다.

6) 1877년 간행된 『무녕현지(撫寧縣志)』 권2에는 장편의 『유관고(榆關考)』(王立柱)라는 논문이 실려 있다. 유관의 명칭과 위치는 근대 이전부터 사가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7) 金景善, 『出疆錄』 12月 11日, 『燕轅直指』 卷2.

망의 증거가 되었다. 산해관은 차단과 소통, 숭고와 붕괴, 영원과 찰나, 웅대와 허무의 이중성을 한 몸에 갖춘 건축물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산해관 감회는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문명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흥분과 감격이었다. 1459년 이승소(李承召)는 경사(京師)로 가는 기쁨에 넘어질 듯했으며 집이 멀어지는 것도 잊어버렸을 정도라고 했다.<sup>8)</sup> 1481년 홍귀달(洪貴達)은 산해관을 떠나며 송골매가 내려앉은 서북쪽 신경(神京)을 바라보니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섰다.<sup>9)</sup> 산해관 진입은 한 달 남짓한 객로에 지친 사신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둘째, 명청 교체 이전 산해관은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영원불멸한 황조의 표상이었다.<sup>10)</sup> 그것은 명조에 대한 경외감을, 불변의 질서라는 안정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명나라 멸망 전에는 물론, 멸망한 지 한참 지나서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셋째, 현실 인식의 장소이자 아이러니의 체험 공간이었다. 외적을 막기 위해 쌓은 요새의 문이 안에서 열리고, 이를 통해 청나라 군대가 들어가 중국을 차지한 현실 앞에서 산해관은 매우 역설적인 존재가 된다. 박지원이 그 의도와 결과의 상호 배반, 웅대한 규모와 소소한 쓰임의 부조화를 지적했던 이유이다.<sup>11)</sup>

그런가 하면 이곳의 먼 역사를 환기하기도 했는데, 이색이 1351년 귀국 길에 지은 「정관음유림관작(貞觀吟榆林關作)」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에서 이색은 천하를 얻은 당태종이 경솔하게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그만 화살에 한쪽 눈을 잃고 돌아가 위징(魏徵)의 비석을 다시 세워준 일을 조롱했다.<sup>12)</sup> 645년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태종은 9월에 회군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임유관(臨渝關)으로 들어와서 황태자를 만났다고 한다.<sup>13)</sup> 임유관

8) “遼陽始遠似欣然，及到關門喜欲顛。爲有如京心事急，却忘家在日東邊。”(李承召, 『入山海關』, 『三灘集』 卷2)

9) “簷間鳥語報天明，門外馬嘶催客程。起傍征鞍望西北，天低鵲沒是神京。”(洪貴達, 『發山海關』, 『虛白續集』 卷4)

10) “山海關，左大洋右峻嶺，境界華夷，控制要衝，天下雄藩也。”(朴而章, 『山海關詩序』(1591), 『龍潭集』 卷4)

11) “蓋此爲天下雄關，而關以西，漸近皇都故也。… 嗚呼，蒙恬築長城以防胡，而亡秦之胡，養於蕭牆之內，中山設此關以備胡，而吳三桂開關迎入之不暇也。當天下無事之日，徒爲商旅之譏征，則吾於關亦奚足云。”(朴趾源, 『駉汎隨筆·山海關記』, 『熱河日記』)

12) “晉陽公子結豪客，風雲壯懷滿八極。… 謂是囊中一物耳，那知玄花落白羽。鄧公已死言路澁，可笑豐碑蹶復立。回頭三叫貞觀年，天末悲風吹颯颯。”(李穡, 『貞觀吟榆林關作』, 『牧隱詩藁』 卷2)

(臨榆(榆關)은 산해관이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 있던 관문으로 간주된다. 고당(高唐) 전쟁 관련해서는 당송 시기부터 많은 설화가 전승되었고, 원대(元代)에는 여기에서 유래한 희곡이 발달했다. 이후 요동 일대에는 당태종과 설인귀 설화가 널리 전승되었다.<sup>14)</sup> 이색은 여기서 숙지하고 있던 관련 사연이 떠올라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어양(漁陽)과 옥전(玉田)에서 지은 시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sup>15)</sup>

석하(石河), 홍화점(紅花店), 범가장(范家莊), 유관(榆關) 등의 지명은 행정 단위가 부기되거나 같은 발음의 글자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마을은 모두 경합선(京哈線) 연로에 자리하고 있어, 격변의 역사와 불변하는 이름 사이의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1488년 산해관을 지난 최부는 “석하(石河)에 이르렀다. 그 남쪽에 오화성(五花城)이 있는데,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설인귀가 쌓은 것이라고 한다.”<sup>16)</sup>라고 기록하였다. 다섯 성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꽃 모양을 만든다 하여 오화성(五花城)이다. 『임유현지(臨榆縣志)』에는 당시 당태종의 급박했던 사정을 들어 설인귀 축조 설을 부정했다. 한편 홍대용을 비롯한 몇몇 조선 사신들은 오화성을 산해관으로 간주하였다.<sup>17)</sup> 현지에서도 그런 견해가 있어왔는데,<sup>18)</sup>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축 성벽 일부가 홍화점 남동쪽 1km 지점에 남아있으며, 현지 고로들은 이 성을 고려성(高麗城)이라 부른다.

유관(榆關)은 홍화점 숙박이 여의치 않을 때, 사행의 관내 첫 숙소로 종종 이용되던 곳이다. 우리 문헌에서 이 지명은 이색의 기록에서부터 나오

13) “丙辰，上聞太子奉迎將至，從飛騎三千人馳入臨榆關，道逢太子。”(『資治通鑑』卷198)

14) 여기에 대해서는 黃斌·張春萍(2008) 참조.

15) 유림(榆林)은 수나라 때 섬서성(陝西省) 황하 북단에 설치된 군으로 당나라 때의 승주(勝州)이다. 『자치통감』에서도 유림군(榆林郡)의 ‘榆關’과 유수(渝水)의 ‘榆關’은 엄격하게 구별했다. 권근처럼 이색도 유관(榆關)과 천민진(遷民鎭, 원나라 시기 산해관의 행정 지명)을 구분하여 사용했다. ‘榆林關’이란 명칭의 사용은 이색의 착오로 보인다.

16) “行至石河，南有五花城，乃唐太宗征高句麗時薛仁貴所築也。”(崔溥，『漂海錄』，5月 6日)

17) 洪大用，『沿路紀略』，『燕記』，『漚軒書』外集 卷8; 朴思浩，『燕薊紀程』，『心田稿』，12月 16日.

18) “[五花城] 在縣西南八里，其城連環五座，相傳爲唐太宗征高麗時所築。永平府志，太宗征遼，自發雒陽，春蔬亦不進，懼其擾民，但明斥埃，不斬土壘運糧，草騎野宿如中國，安得築城於此，其說近理，山海志所載，恐未足據也。”[주석] “… 盛京通志云，山海關有老城，東羅城，西羅城，南新城，北新城，五城連繞，亦名五花城。”(『輿地編，古蹟』，『臨榆縣志』卷7)

며, 유관역(榆關驛)은 1481년 홍귀달의 시에 처음 보인다. 이로 보아 ‘榆關’이란 지명은 늦어도 14세기 중반에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애초부터 유적은 없었지만 이름 때문에, 몽염이 느릅나무를 심어 번새를 만들었던 곳<sup>19)</sup>이라는 등 장성(長城)을 환기하는 시들이 많이 지어졌다. 아래는 16세기 유관의 소품 풍경화 두 점이다.

동관 지나 산해관 또 다시 유관이라	東關山海復榆關
세 관문 지났어도 남은 길 험난하네	透得三關尚阻艱
게다가 거용관이 황제 고을 들렀으니	更有居庸環帝里
언제나 첩첩 산 속 천자봉 만나려나	何時疊翠對孱顏 <sup>20)</sup>

꽃비는 떨어져도 향기는 날리거니	一簾花雨細飛香
구름은 밤 깊도록 통방에 자욱하네	半夜行雲鎖洞房
백발의 늙은이라 말들을 마시게나	莫道老翁鬢盡白
풍류는 소년랑에 밀리지 않는다오	風流猶勝少年郎 <sup>21)</sup>

위는 유관(榆關)에서 지나온 동관(東關)과 산해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거용관(居庸關)을 떠올리며, 멀고 지루한 여정 속에서 하루빨리 천자를 만나 사행을 끝내고 싶은 염원을 담은 희작이다. 동관은 산해관 전의 역참이고 거용관은 사행로와는 무관하니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지만, 앞뒤 여정을 헤아려 시상을 떠올리며 여정의 고단함을 달래는 모습은 음미할 만하다. 아래는 유관의 창루(娼樓)에서 하루를 묵은 늙은 역관을 놀리는 작품이다. 대규모 사행단이 묵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장시가 섰으니, 거기 주루(酒樓)가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근엄한 외교사행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소개한다. 유관의 주루에는 실제 창기 양한적(養漢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sup>22)</sup> 1800년 전후 제패련(齊佩蓮)이란 서생이

19) 金昌業, 『燕行日記』 卷3, 12月 19日.

20) 鄭士龍, 『榆關戲書』(1534), 『湖會雜稿』 卷2. 마지막 구의 ‘孱顏’은 험준하고 높은 봉우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천자의 비유이기에 ‘천자봉’으로 번역하였다.

21) 韓應寅, 『榆關城裡, 嘲韓譯潤輔宿倡家』(1584), 『百拙齋遺稿』 卷1. 화우(花雨)와 세향(細香), 행운(行雲)은 모두 중의로 사용된 것이다. 한응인은 산해관과 유관성(榆關城)을 따로 사용하였다.

있어 조선의 여러 사신들과 시를 주고받았는데, 경유지에서의 이런 소소한 교류의 양상도 눈여겨 볼 만하다.<sup>23)</sup>

사신들에게 무녕(撫寧)은 산수와 풍기가 좋기로 정평이 난 곳이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멀리 보이는 창려현(昌黎縣)의 문필봉(文筆峰)이었다. 사신들은 글로만 익혔던 한유(韓愈)의 문기(文氣)를 산봉의 모습으로 지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1723년 윤순(尹淳)과 서학년(徐鶴年)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서화 교류의 전통이다. 사신들은 으레 서학년 후손의 집에 들러 고금의 서화를 구경했는데, 밖에서는 서화 매매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무녕은 문명의 고을로 일컬어졌다.<sup>24)</sup> 이덕무도 1778년 이 집에 들렀고 그 감회를 시로 지었다.

고려의 나그네가 고려성(古驪城) 도착하니	高麗客到古驪城
문화가(文華家) 현주께서 반가이 맞아주네	賢主華堂把臂迎
헤어지기 아쉬워 술잔을 기울이매	惜別深盃傾細細
술 이름 아황주라 남경 산 명주라오	鵝黃名酒出南京 <sup>25)</sup>

시 끝에 “무녕현성 동문을 고려라 한다[古驪撫寧縣城東門曰古驪]”고 주를 달았다. ‘古驪’는 ‘옛驪城’이란 뜻이니, 한나라 때 이 지역에 여성현(驪城縣)이 설치되었던 데서 가져온 것인데,<sup>26)</sup> 그럼에도 언어유희의 즐거움이 배어난다. 이처럼 경쾌한 언어유희가 가능했던 것은 서소분(徐紹芬) 집에서의 즐거운 체험 덕분이다. 주인을 만났고, 마음이 통했는지 헤어짐이 아쉬워 이별주를 마셨는데, 거기에 술까지 명주였다.<sup>27)</sup> 짧은 시의 문자들이

22) 徐有聞, 『戊午燕行錄』(1798) 卷2, 12月 13日.

23) 홍양호(1794), 김재찬(1799), 강준흠(1805)의 시 참조.

24) “撫寧縣在榆關西二十里, 山水明媚, 西南接昌黎縣, 奇峯秀出天外如卓筆, 俗稱文筆峯以此. 撫寧自古以文明稱, 有徐氏尤縣中大姓, 有中進士者家富豪, 多書畫器玩, 頗喜詩律, 使行過之者莫不踵門求見. 進士亦延接款洽, 由是徐進士名聞東國.”(洪大用, 『撫寧縣』, 『燕記』, 『湛軒書』外集 卷7)

25) 李德懋, 『題撫寧縣徐紹芬家』, 『雅亭遺稿』 3, 『靑莊館全書』 卷11.

26) 『무녕현지(撫寧縣志)』(1877년 重修) 권1에는 「양악여성고(陽樂驪城考)」란 논문이 실려 있어 그 전후 정황을 자세히 고증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현은 당시 무녕성(撫寧城) 서문 밖에 있었다고 한다.

27) 이 날의 정황이나, 집의 분위기 등은 그의 「입연기(入燕記)」(상) 2월 8일 기사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농친 1778년 2월 8일 무녕 서소분 집에서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그리려면, 우선 자리 하나를 차지했을 박제가의 모습을 상상해야 하고, 나아가 규장각 검서로 임명되기 전 정조의 명에 따라 사행을 따라 나선 서얼 지식인의 흥분과 포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 III. 갈석(碣石) 문필(文筆) 원경과 난하(灤河) 풍정(風情), 무녕(撫寧) - 영평(永平)

연행록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기타
脫羊河	洋河	羊河, 羊腸河, 陽河, 楊河, 洋河
碣石山, 文筆峰	碣石山, 文筆峰 (五峰山)	昌黎縣 북쪽, 撫寧과의 직선거리 대략 17km
兔耳山	兔耳山	兔兒山, 兔魚山
蘆峰口驛, 背陰鋪	蘆峰口村, 背陰鋪村	
雙望堡	雙望鎮	
永平府	盧龍縣 (秦皇島市)	西門(望京)과 서벽 잔존, 高麗館
射虎石	虎頭石村 (盧龍鎮)	설화만 유전되고 있음
靑龍河, 灤河	靑龍河, 灤河	
夷齊廟	唐山市 灤縣 油榨鎮 孫薛營村	흔적 없이 인멸

무녕을 떠난 사행은 양하(洋河)를 건넜고, 곧 발을 멈추고 길 남북에 솟아있는 토이산(兔耳山, 해발 571m)과 천마산(天馬山, 해발 300m)에 시선을 빼앗겼다. 토이산은 토끼의 두 귀 모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고, 북쪽의 천마산은 ‘天魔山’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sup>28)</sup> 현재 두 산 모두 무녕의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신들의 발길을 더 오래도록 잡아두고, 걸음을 옮긴 뒤에 또 귀국한 뒤에도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있던 산은 토이산 넘어 창령현에 있는 갈석산(碣石山)과 문필봉(文筆峰)이었다. 창령 북쪽에 나란히 솟은 갈석산(695m)·문필봉(五峯山)과 영평 가는 길 사이의 직선거리는

28) 다음 시는 유관(榆關)에서 토이산과 천마산을 본 감회를 표현한 것인데, 지리상 두 산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무녕(撫寧)과 영평(永平) 사이이다. “兔耳昌黎爽氣多, 中間獨立是天魔. 探奇宿願今方愜, 喚酒榆關倚半舵”(李夏鎮, 『榆關望天魔山』(1678), 『六寓堂遺稿』 冊1)

육안으로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16, 7km에 지나지 않는다.

창려현에 가본 적 아직 없지만	未到昌黎縣
갈석산 여러 사연 알고 있다네	傳聞礪石山

서거정이 사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노봉역(蘆峰驛)을 지나 무녕을 향해 가는 길에 지은 시의 함련(頷聯)이다.<sup>29)</sup> 여기서 서거정이 문헌으로 읽어 알게 된(傳聞) 갈석산이란, 진시황이 올라 신선이 되기를 구했다는, 207년 오환(烏桓)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올라 “東臨礪石, 里觀滄海”로 시작하는 시 「관창해(觀滄海)」를 지었다는,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 등 여러 지리지에 나오는 바 낙랑(樂浪) 수성현(遂城縣)에 있는 장성의 동쪽 기점(起點)이라는, 아니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언급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시기 고구려가 군사를 모았다는 ‘갈석과 발해 사이’의 갈석 등일 것이다. 이 갈석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창려현 갈석산 설, 북대하(北戴河) 해안의 금산취(金山嘴) 설, 산둥성 무척현(無棣縣) 마곡산(馬谷山) 설 등이 제기되었지만, 최근에는 창려현 갈석산 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sup>30)</sup>

서거정은 화제를 진전시키지 않았지만, 이를 오늘날 사유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갈석산은 그 역사 사연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인 패수(溟水)의 정체, 고조선의 강역, 그리고 낙랑의 위치 등 고대사의 여러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고대사 논의는 갈석산의 위치, 장성(長城)의 동단(東端), 패수 및 낙랑의 위치 등을 논할 때마다 각각 기준이 달라 혼란이 빚어진다. 국가주의 등 외적요인들이 지나치게 작동하는 탓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 다만 여행로의 많은 부분은 고대 한국사의 강역과 겹치고, 지리현장에 대한 고찰에는 이 문제가 자연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행로 일대 지리지들과 여기서 지어진 한중 문사들의 시문에는 이 사안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만 지적해두기로 한다. 아울러 여행록은 연구 수준에 따라 작자의 의도와 지식, 또는 문자 그 자체

29) “蘆峯靑隱隱, 楊水碧灣灣。在蘆峯東南七八里 … 官橋楓葉亂, 野路菊花團。薄暮催詩雨, 蕭蕭入鬢斑。”(徐居正, 『撫寧衛途中』, 『四佳詩集』卷7)

30)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任乃宏(2014), 宋蒼松(2015) 참조.

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해둔다. 사신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은 산은 문필봉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문필봉이 있는 창려는 한유의 군망(郡望)이고,<sup>31)</sup> 창려와 오봉산에는 한유의 사당이 있었으니, 한유를 읽으며 문장을 익혔던 조선 지식인들은 이 산을 한유와 동일시하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창려에 한유 사당을 세우고, 문필봉을 명명한 것은 1641년 산해관 주수(駐守) 범지완(范志完)이 한 일이다. 중국에서 한유를 상징하는 지역은 고향인 하남 맹주(孟州), 임지였던 광둥(廣東) 조주(潮州), 그리고 창려 세 곳인데, 오랜 논란 끝에 창려가 그의 조적지(祖籍地)라는 설이 우세하다고 한다.<sup>32)</sup> 사실 여부보다 사신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유에 대한 선망, 그리고 그의 문장이 표상하는 중국 문명에 대한 동경이었다. 하여 박지원도 동행을 구하지 못해 탐방 욕심을 안타깝게 접었고(『관내정사』 7월 25일) 많은 경우 이는 염원으로만 남게 되었다.<sup>33)</sup>

창려현 북쪽으로 필봉이 푸르거니	昌黎縣北筆峯青
선생의 문장 영기 여기서 배었구나	夫子文章此孕靈
하물며 옛 구름이 아직껏 있다 하니	況說雲仍今尙在
옛 고을 바라보며 남은 향 맡아보네	遙瞻舊里挹遺馨 <sup>34)</sup>

조문명(趙文命)의 시(1725)는 문필봉을 바라보는 사신들의 심경을 잘 대변한다. 배삼익(裴三益)이 1587년 지은 바, 사행 일정상 그 자취를 찾아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문장의 남다른 성취와 백대에 끼친 공적을 기리는 시의 정서 또한 위 작품의 그것과 상통한다.<sup>35)</sup> 이러한 체험은 문명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낳았다. 홍양호는 무녕과 창려의 여러

31) 한유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의 가장 큰 이유이다. “記言礪石亦傳疑，廣輿記有石特出山頂。形如柱，疑卽禹貢冀州之礪也。文筆名峯更可嗤，俗號此爲文筆峯。若指文公當地驗，文公初不產於斯。”(沈象奎, 『撫寧途中 望昌黎礪石山』, 『斗室存稿』 卷1)

32) 百度百科의 ‘昌黎縣韓文公祠’ 조.

33) “... 恨殺行驂長帶忙，未得迤轡一尋見。”(李宜顯, 『紀行述懷次三淵韻 其33 昌黎縣』, 『陶谷集』 卷3)

34) 趙文命, 『望昌黎縣文筆峯』(1725), 『鶴巖集』 冊2. “문공의 후손 순(詢)이 거인(學人)으로 여기 산다고 한다[聞文公之後名詢，以學人在其里云]”는 자주가 달려 있다.

35) “聞道昌黎古縣空，嚴程不暇訪遺蹤。風雲變態篇章裏，日月爭光奏疏中。事業無成身已遠，勳名不立命何窮。祇今廟食稱山斗，扶植斯文百代功。”(裴三益, 『昌黎縣』, 『臨淵齋集』 卷3)

산 위에 떠있는 문명의 기운에서 비로소 중화세계에 이른 느낌을 토로했다. 장성 안의 기주(冀州) 땅은 황제의 존엄이 서린 곳인데, 사신들은 갈석산과 문필봉 등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관외와는 다른 관내(關內)의 역사문화적 풍기를 실감했던 것이다.<sup>36)</sup> 조문명은 4월 궁궐을 나서 여행길에 오르는 감회를 “오늘 아침 하직하고 대궐을 나서보니, 갈석산 문필봉이 말 머리 앞에 있네[今朝始拜丹墀出, 碣石峯山在馬頭]<sup>37)</sup>”라고 읊조렸을 정도로, 갈석산과 문필봉은 여행길의 표상 산천이었다.

갈석산과 문필봉의 사연들을 음미하는 가운데 도착한 곳은 영평부(永平府)였다. 도중의 노봉역(蘆峰驛) 등 옛 지명은 대개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영평은 명칭 시기 내내 부(府)의 지위를 잃지 않았으며 심양성에 견주어질 정도로 성지(城池)의 규모가 웅장했다. 현재 서쪽으로 성문과 성벽 일부가 남아있으며, 서문 옹성 벽 위에 ‘望京’ 액석이 옛 모습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고로들은 서문 안 황목장호동(荒木場胡同)에 고려관(高麗館, 朝鮮館)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문헌에 성내의 전용 숙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성 밖에서 묵었다는 기록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영평은 고대 고죽국(孤竹國)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孤竹’이란 명칭은 흉노(匈奴), 훈족(獯鬻), 호(胡) 등 북방 유목민족을 가리키는 명칭과 고대어 발음이 유사한 데서 기원하는데, 그 뜻은 ‘아들이고, 여기서 ‘天子’란 의미가 과생되었으며, 고대 황제의 자칭인 ‘孤’도 흉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고죽국의 영토는 노룡(盧龍)과 조양(朝陽) 일대였는데, 북송 시기 『책부원귀(冊府元龜)』의 “고려 땅은 본래 고죽국 지역이다.”<sup>38)</sup>, 『회남자』의 “동방의 끝은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sup>39)</sup> 등의 기록을 근거로 당시 고조선의 영토가 고죽국 인근이었음을 추론하였다. 나아가 오랫동안 의문에 쌓여있던 (朝鮮)‘天毒’(『산해경(山海經)』)의 음가

36) “包山絡野壯藩垣, 天限華夷此一門. 海內無如冀州大, 域中方識帝鄉尊. 文峰日暎昌黎縣, 岱嶽雲深闕里村. 風氣由來隨地變, 長城內外異寒暄.”(洪良浩, 『燕雲續詠·途中望見撫寧, 昌黎諸山文明之氣, 真是中華世界, 詩以賦之』, 『耳溪集』卷7)

37) 趙文命, 『燕行錄·辭陸』, 『鶴巖集』冊2.

38) “高麗之地, 本孤竹國也.”(卷990)

39) “東方之極, 自碣石過朝鮮 …”(『時則訓』)

가 험독(險瀆)과 같았으며, 언어의 유사성으로 보아 조선과 흉노의 기원이 같다는 과감한 견해도 제기되었다.<sup>40)</sup> 옛 문헌에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이 고죽국과 인접하였고,<sup>41)</sup> 때문에 영평 경내에 조선성(朝鮮城) 또는 조선현(朝鮮縣)이 있었다는 기록이 꾸준히 전승되었다.<sup>42)</sup>

하지만 북경 사행이 진행되는 동안, 옛 고죽국 땅에서 사신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오직 이제(夷齊)의 사연이었다. 1356년 이색은 형제의 자취를 부러 찾아 감개한 마음을 드러냈고,<sup>43)</sup> 1463년 강희맹(姜希孟)은 난하역(灤河驛)에서 형제를 기리는 시 세 수를 지었는데 ‘孤竹淸風’을 읊는 본국인이 자못 많다고 했다.<sup>44)</sup> 여러 차례 북경을 다녀온 성삼문(成三問)은 이제의 사당을 찾은 감격을 시로 남겼으며,<sup>45)</sup> 연행 경험 없는 김시습도 서거정의 『영평팔경(永平八景)』에 화답하면서 ‘孤竹淸風’을 찬미하였다.<sup>46)</sup> 이들이 받아들인 이제(夷齊)는 공자의 해석을 거친 유교적 충절의 표상이었고, 이는 여말선초 사대부 지식인들의 관념에 쉽게 용해되었으며, 현장 체험은 용해작용을 촉진시켰다. 세조의 계유정난에 많은 지식인들이 맞서 희생된 데에는 이러한 요소도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 숭모는 조선 후기에 더 강화되어 신앙에 가까워진다. 이는 양란 뒤 전체적으로 보수이념화 되는 조선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영평을 떠난 사행은 청룡하(靑龍河)와 난하(灤河)를 건너, 또는 난하를 거슬러 올라가 이제묘(夷齊廟)에 참배하였다. 연행록의 이제묘 외관과 운영에 대한 묘사는 매우 풍부하여 변천사 기술이 가능할 정도이고, 18세기 이후의 몇몇 기록은 이를 토대로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다.<sup>47)</sup> 사행이 고사리국을 끊어 이

40) 趙志强(2016).

41) 黃斌·劉厚生(2007), 제8장, 『孤竹之國, 與其毗連』.

42) 『태평환우기(太平園宇記)』 권70의 ‘고죽성(孤竹城)’, 『일통지(一統志)』(明) 권5의 ‘고죽국(孤竹國)’, 『대정일통기(大清一統志)』 권14의 ‘영평부(永平府)’ 관련 기사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

43) “…扁舟日暮渡河頭, 訪問遺蹤傷我情. 燈前坐詠孤竹吟, 天理人心無古今.”(李穡, 『孤竹吟 盧龍縣作』, 『牧隱詩藁』 卷4)(1356년 귀로)

44) 姜希孟, 『癸未秋, 朝燕到灤河驛, 前廳倚幃, 有永平八景圖, 本國人詠孤竹淸風者頗多, 遂題三絕』, 『私淑齋集』 卷1.

45) “當年叩馬敢言非, 大義堂堂日月輝. 草木亦霑周雨露, 愧君猶食首陽薇.”(成三問, 『灤河祠』, 『成謹甫先生集』 卷1)

46) “長歌易暴不知非, 一代芳名萬古輝. 商嶺紫芝雖曄曄, 淸風爭似北山薇.”(金時習, 『四佳先生赴京, 於途中, 作永平八景奉和·孤竹淸風』, 『梅月堂詩集』 卷6)

47) 황재(黃粹)의 『갑인연행록』(1734) 권2 『도관록(度關錄)』 9월 1일 기사나, 청절묘(淸節廟)·

제묘에 참배하는 행사는 1712년에 이미 상례가 되어 김창업의 웃음을 샀다. 이는 윤리가 이념이 되고 이념이 신앙이 되면서 종교적 의례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그 허위와 모순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낳았다. 과도한 작용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인 셈이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7월 26일 조에 이제묘에 들른 사실을 기록했다. 이어 세 편의 독립 산문 「이제묘기(夷齊廟記)」, 「난하범주기(灤河泛舟記)」, 「석호석기(射虎石記)」를 배치했다. 27일 조에 그 날의 여정을 기술하고는, 잊고 있었다는 듯 이제(夷齊) 관련 세 편의 일화를 짐짓 삽입해놓았다. 두 편은 이제묘에서 일어났던 고사리국 관련 해프닝이고, 하나는 대명 의리론에 사로잡혀있는 시골 훈장이 자기 학동들에게서 조롱당하는 이야기이다. 세 삽화는 이제묘에 관한, 그리고 이제묘가 환기시킨 이야기이면서, 조선 사신들의 이제묘 참배 풍경이 자아내는 우스꽝스러움, 나아가 조선 지식인들의 허위에 대한 풍자이다. 이러한 풍자가 중요한 것은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인식을 멈춰 세우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구성과 배치의 묘미 또한 음미할 만하다.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백이숙제에 대한 재해석이 풍자적 서사로 그려진 바 있어 우리 연구 시야의 확대를 요구한다.<sup>48)</sup>

#### IV. 계문란(季文蘭)의 사연과 고려포(高麗鋪)의 비밀, 영평(永平) - 풍윤(豐潤)

연행록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기타
野鷄屯, 沙河驛	野鷄屯鎮, 沙河驛鎮 (唐山市 灤縣)	
七家嶺, 乾河草	七家嶺村, 干河草村	

청풍대(淸風臺)·수양산(首陽山)·난하(灤河)·고죽군묘(孤竹君廟)에 대한 독립 기사를 모은 「고죽고적기(孤竹古蹟記)」(『요야기정(遼野紀程)』)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8) 청초 저술로 추정되는 『두봉환화(豆棚閑話)』 소재 「수양산숙제변절(首陽山叔齊變節)」이 그것이다. 여기서 숙제는 굶주림을 못 이겨 혼자 하산하고, 왕조의 흥망성쇠가 자연스러운 일임을 확신하게 된다. 루쉰(魯迅)의 「채미(采薇)」(『고사신편(故事新編)』, 1935)도 같은 맥락의 작품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호의 두 편 논문(2002) 참조.

榛子店	榛子鎮 (唐山市 灤縣)	季文蘭 題壁詩의 사연
板橋, 銀城鋪	板橋村, 銀城鋪	풍운구 동남쪽 郊區
豐潤縣	豐潤區 (唐山市)	榮寧道, 고성(高城)의 중심을 동서로 갈랐던 도로.
還鄉河	還鄉河	洩水, 당태종과 북송의 휘종  homolog 전설
高麗鋪(高麗堡)	高麗鋪村 (豐潤區 豐潤鎮)	謊粮屯, ‘高麗堡’ 표석(1555)은 당산시 박물관

이제요 참배를 마친 사행은 야계둔(野鷄屯)과 사하역(沙河驛)을 지났는데, 사하역은 사행이 자주 묵던 곳이다. ‘沙河’가 들어가는 연행로 상의 네 곳 지명 중 마지막 장소이다. 인평대군은 1652년 초 사하역에서, 전년도 그 맘때를 회고하는 두 수의 시를 지었다. 한 수의 내용은 청 황실에서 조선 공녀(貢女)<sup>49</sup>를 되돌려 보낸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던 일이며, 다른 하나는 도르곤(多爾滾)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경석(李景奭)과 조경(趙綱)의 안위를 걱정했던 일이다.<sup>50</sup> 당시 이경석과 조경은 효종이 계획한 북벌의 책임을 지고 백마산성에 위리안치되어 있었고, 도르곤<sup>51</sup>은 조선에 호의적인 실권자였기 때문이다. 인평대군은 전쟁과 인질, 명청의 교체와 승전국의 압력, 외교 사행을 두루 겪은 갓 30세의 패전국 왕자였다. 이로부터 150년 뒤 흥랴르는 길가의 아름답리 가로수와 사람들의 말끔한 복색을 보며 청나라의 승평과 변화상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sup>52</sup>

이어 지났던 진자점(榛子店)은 뜻밖의 사연으로 1680년부터 200년 동안 사신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곳이다. 그 발단은 신경(申景)이 이곳 객점 벽에 쓰인 시를 옮겨 적고, 그에 대한 시를 지은 일이다. 진자점에는 명대부터 술집이 많았고,<sup>53</sup> 청대에 들어서도 기녀가 많은지라 박지원도 한바탕 주루

49) 김갑주(1980).

50) “去年今日此間過, 古壘風塵薄暮多. 飛騎忽傳還貢女, 爲停行蓋喜如何.”, “邊人來報單于死, 落日初斜古郭時. 兩夜催行六百里, 片心唯恐二臣危. 二臣卽李相國景奭 趙判書綱.”(李潛, 『沙河驛 回想去年光景』, 『松溪集』 卷2)

51) 당시 도르곤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김선민(2014) 참조. 도르곤은 1650년 12월 31일에 죽었다.

52) “百年中國報昇平, 生老鄉廬不見兵. 路畔樹多連抱壽, 里中人少弊衣行. 始知漢法元從簡, 方信天心在好生. …”(洪良浩, 『燕雲續詠(甲寅)·向沙河驛, 路傍多大樹, 漫吟』, 『耳溪集』 卷7)

53) “花前聽鳥成歌管, 霧裏看山似畫圖. 傍柳人家知有酒, 囊中羞却一錢無.”(李晔光, 『榛子店』)

체험을 하면서 그녀들이 부른 노래 가사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sup>54)</sup>

서장관 목군칙(目君則)이 풍운 진자점 벽 위에서 시 한 수를 발견하고 내게 말해주었다. 시는 이러하다. “설어라 멩치 머리 옛 모습 서글프고, 비단치마 어디 가고 길 차림 하였어라. 부모님 생사 여부 어디에 몰으려나, 살 에는 봄바람에 심양으로 팔려가네. [椎髻空憐昔日粧, 征裙換盡越羅裳. 翁娘生死知何處, 痛殺春風上瀋陽.]” 그 아래 “나[奴]는 강주(江州) 수재 우상경(虞尙卿)의 아내이다. 지아비는 살해당하고 나는 사로잡혀 왕장경(王章京)에게 팔렸다. 무오년(1678) 정월 21일 눈물을 훔치며 벽에 적는다. 천하에 유정한 사람 있어 이를 보고 구해준다면 비루하다는 욕설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1살이고, 아버지 계(季)아무개는 수재이며, 어머니는 진(陳)씨이다. 오빠의 이름은 국(國)으로 부학(府學)의 수재이다. 계문란(季文蘭) 쓰다.”라고 하였다. 나는 듣고 슬피 말했다. “이는 시를 잘 짓는 규중 아낙의 솜씨이다. 세상에 전란이 일어 백성들이 그 화를 당했으니, 규중의 섬약한 여인 또한 이역에 몰락함을 면치 못했구나. 천고의 원한이 채문희(蔡文姬) 한 사람뿐이 아니로다.” 절구 한 수를 지어 그 일을 읊조려본다.<sup>55)</sup>

계문란의 시는 얼마 안 가 지워지고 또 벽이 헐려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이 사연은 1881년까지 계속 화제가 되었으니, 관련 기사가 59건이나 된다.<sup>56)</sup> 연행록에서 한 사람의, 그것도 사서에 오르지 못한 한 여인의 사연이 59회나 화제가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계문란의 행적에 관심은 공명과 동조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에는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유린당한 삶의 상실감이라는 동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신들은 패전국 지식인의 비애를 계문란에 투영했고, 반대로 계문란의 사연에서 자기 처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자기 상처도 어무만지는 피해자끼리의 연대감이랄까,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처를 극복하려는 반성이나 노력 없이 위안을 통해 그 상태에 머무르려 한다는 점에서 병약함의 징후로 보인다. 계문란의 사연은 당대 피로(被虜) 여성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명말청초 중국 문학사의 특징적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sup>57)</sup> 제가의 해석

(1611), 『芝峯集』 卷16)

54) 朴趾源, 『關內程史』 7月 27日, 『熱河日記』.

55) 申晷, 『燕行錄』, 『汾厓遺稿』 卷5.

56)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윤주필(2016) 참조.

은 계문란이 실존인물이라는 데 이의가 없는데, 영고탑 등지로 유배 가는 남성 사인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8)</sup>

풍운(豐潤)은 조선 전후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행이 묵었던 곳이다. 사족이 많아 필담이 잦았다.<sup>59)</sup> 서사(書肆)가 발달하여 수많은 책이 쌓여있었으며, 서적 매매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685년 최석정(崔錫鼎)은 상아 책갈피 꽃인 수만 권 책을 뒤지느라 시름을 잊을 정도라 했고,<sup>60)</sup> 1712년 김창흡은 김창업을 보내며 비단 보자기에 싸인 책들로 가득한 천 칸 서사를 언급하며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sup>61)</sup> 서화와 골동을 팔러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sup>62)</sup> 사행에는 으레 대규모 상단이 따랐고, 교역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사신들의 기록에 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으니, 한마디씩 언급되는 시장과 거래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sup>63)</sup> 풍운은 심양이나 산해관에 비해 금제가 허술하여 성벽 위 출입이 가능했는데, 홍대용도 풍운성 위에 올라 그 제도의 정밀함에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sup>64)</sup> 풍운의 영녕도(榮寧道)는 옛 풍운성의 동서 대로이며, 현지의 고로들은 문묘(文廟)와 관제묘(關帝廟) 자리 등을 기억하고 있다.

사행은 풍운성 남문을 나와 서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환향하(還鄉河)를 건넜다. 환향하의 이름 유래 설화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당대종이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이 강을 건너 돌아갔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57) 楊海英(2007); 林津羽(2008).

58) 한 예로 1659년 오조건(吳兆騫)은 영고탑으로 유배가는 도중, 계주 근처 역참 벽에 금릉(金陵) 여인 왕친양(王倩嬈)을 가탁하여 두 수 시를 적었는데, 그 정조가 하도 처량하여 북경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하였다고 한다. 이승수(2017) 95~96면.

59) 남구만이 1686년 풍운에서 곡문장(谷文張)과 작시의 압운(押韻)에 대해 나눈 대화를 화제로 삼아 한자어음의 변천 가능성을 유추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南九萬, 『丙寅燕行雜錄』, 『藥泉集』 卷29)

60) “畿東保障前朝誌, 遼左行人此日投. 幾處市鋪聯彩旆, 兩重城闌帶清流. 當墟女或粧明媚, 衽革民今俗惰偷. 萬軸牙籤堆眼裏, 手忙披處可忘憂.” (崔錫恒, 『椒餘錄乙丑冬·豐潤疊投字』, 『明谷集』 卷3)

61) “絳紗護架千間肆, 玉軸牙籤貯秩秩. 中原已絕讀書種, 揜爲朝鮮人檢閱. 不須浪費橐中金, 滿目山川卽故實. 豐潤書肆”(金昌翁, 『送大有隨伯氏赴燕 36』, 『三淵集』 卷11)

62) 洪大容, 『沿路記略』, 『燕記』, 『混軒書』 外集 卷8.

63) 유득공은 풍운에서 날렵한 부채 하나를 사 오면서 그 감회를 시로 표현한 바 있는데, 풍운은 무녕(撫寧)과 함께 부채의 산지로도 유명했다. “梨花千里坐襄簾, 詩卷燕臺歲月淹. 買取輕盈豐潤扇, 檢關東出禦新炎. 豐潤縣”(柳得恭, 『遼野車中雜詠』, 『冷齋集』 卷5)

64) 洪大容, 위와 같은 곳.

복숭의 휘종이 이 물줄기를 건너며 기약할 수 없는 환향(還鄉)을 탄식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사신들에게 환향하는, 도하 이후 바로 나타나는 고려포(高麗鋪(堡))와 결부되어 짙은 향수(鄉愁)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연행록에 고려포는 1539년부터 등장한다. 이 마을에 논[水田]이 있고 음식도 조선과 비슷하여, 굳이 이름 묻지 않아도 조선 마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sup>65)</sup> 중국 북방의 논농사가 근대 조선인들이 이주하면서 시작된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특별한 일이다. 하지만 지명의 내력에 대해서는 첫 기록에서부터 18, 9세기까지 시종 이는 사람이 없었다.<sup>66)</sup> 고려포의 내력은 아직 비밀에 싸여있다.

이 비밀을 풀려는 논의가 두 차례 시도되었다. 王得成은 『풍운현지』의 내용과 전설을 종합하여 마을의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마을 이름은 ‘黃草坨’ 또는 ‘謊糧坨’였으며, 당대(唐代)에 고려인들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조사 중에 ‘大明嘉靖三十四年, 高麗堡’가 새겨진 표석<sup>67)</sup>을 발견했다. 명대에는 조선 사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문물 교류의 중심지였다. 상호간의 기술 교류가 제지술(製紙術)과 직포술(織布術) 등 이 지역의 수공업 발전을 촉진시켰는데, 조선 부채를 개선하여 만든 풍선(豊扇)이 북경 동쪽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것을 예로 들었다.<sup>68)</sup> 청일전쟁 이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마을이 급격히 쇠락했다고 한다.<sup>69)</sup> 이 논문은 아직 연행록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데다, 그 시각과 분석이 다분히 낭만적이어서 심분 수궁하기 어렵지만, 현지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도된 첫 번째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다.

65) “草屋柴籬烟火疎, 門前稻畝水平渠. 村名不必煩相問, 景色依然是我居.”(金昌業, 『燕行填旆錄·和伯氏高麗堡作』, 『老稼齋集』 卷5)

66) “高麗鋪, 問之未詳.”(權檉, 『朝天錄』(1539), 『冲齋集』 卷7; 洪良浩, 『燕雲續詠(甲寅冬)·到高麗堡, 招問父老, 無人識古事者, 悵然而題』(1794), 『耳溪集』 卷7.

67) 2003년 1월 논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마을에는 기념관이 있었고 그 안에 표석 및 안내문 등이 있었다. 2004년 방문했을 때 이 기념관 자체가 없어졌는데, 당산(唐山)시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68) 다음 『풍운현지』, 『물산』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高麗國貢使每年冬至春歸, 經由邑之南關, 其輿隸僕從, 輒携其扇篋貨賣, 制極粗惡, 而膠瑟牢固. 屠買時或利之, 士大夫不屑捉也. 豐人倣其式爲之, 而小變其法, 骨以斑竹雲竹棕竹, 繪以山水花卉翎毛. 著名畫士如商山, 紀紘, 唐瓚, 雷炳, 嘉道以如侯國祥, 葉成學, 鄭榮祺, 曹銓, 現在如于榮慶, 亦俱生動有致. 豊扇之名與豊腴并驅畿東, 良有以也.”(王得成 논문에서 재인용)

69) 王得成(1995).

최근의 논문에서 黃普基는 고려포의 성쇠는 환향하의 물길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고려포가 1539년 기록에 처음 보이고 1537년 기록에 보이지 않는 점, 1537년 대홍수로 환향하가 범람했다는 연행록의 기록을 들어, 건촌 시기를 1537년 10월~1539년 10월 사이로 단정했다. 고려포의 쇠락 또한 18세기 말 환향하 물길의 변화로 농민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 사신들이 고려포에 특별하게 반응한 것은, 전란 이후 반청(反淸)과 향수(鄉愁) 등의 복합적인 심리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고려포는 고려(조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sup>70)</sup> 고려포의 흥망을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해석한 것이 흥미롭다. 하지만 이 주장은, ① 하필 이름이 ‘高麗’였는지, ② 수많은 기록이 증언하는 수전(水田) 등 조선의 문화는 다 무시해도 좋은 것인지 등의 문제는 생략하고 있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는 한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첫째, 마을의 건립 연대와 경위는 黃普基의 견해를 수용한다. 둘째, 마을 이름이 ‘高麗(鋪)’가 된 것은 원래 지명인 ‘謊糧坨’와 관련 있을 것이다. 하북과 요동 지역에 전승되는 ‘謊糧坨’ 설화는 쫓기던 당태종이 가짜 곡식 무더미로 고구려군을 속였다는 내용이다.<sup>71)</sup> 고구려 관련 설화나 산성 등 유적이 있는 곳의 지명에 ‘高麗’ 또는 발음이 비슷한 ‘高力’ 등이 들어가는 사례는 적지 않다.<sup>72)</sup> 셋째, 수전(水田)과 음식 등의 조선 문화는 후대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음식 등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도 또 대규모 유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것이라 문제가 안 되는데, 농민사의 규모가 꽤 컸다면 집단 유이민(전쟁 포로 포함)의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전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접근이 필요할 터이다. 고려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가설이 필요하다고 본다.<sup>73)</sup>

70) 黃普基(2013).

71) “謊糧坨在縣西北十五里, 相傳唐太宗設, 以誑高麗.”(『古迹』, 『풍요현지』)(王得成 논문에서 재인용)

72)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2009) 참조.

73) 2003년에 확인한 바 고려포촌의 기념관에는, 1466년 사은사로 갔다가 귀국 도중 통주에서 죽은 이문형(李文炯)의 무덤이 마을에 있었다고 했으며, 조선 사신이 지은 시 『제풍윤역참(題豐潤驛站)』(“柝聲傳永巷, 新月卦西樓. 千里東歸客, 寒窓一夜愁.”)가 벽에 써어 있었다.

## V. 「호질(虎叱)」의 탄생과 연소왕(燕昭王)의 회억, 풍윤(豐潤) - 계주(薊州)

연행록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기타
沙流河, 東八里堡	沙流河鎮, 八里鋪村	
玉田縣	玉田縣 (唐山市)	虎叱, 鼓樓 터 중심의 鼓樓東西街, 鼓樓南北路
彩亭橋, 蜂山店	彩亭橋鎮, 蜂山村	彩亭橋 2001년에 복원
宋家(子)城	石河村 (唐山市 玉田縣)	후손 살고 있음
別(鰲)山店	別山鎮	여기서부터 薊州 가는 옛길 분기
(大小)雲泉寺	(大小)雲泉寺村	雲田寺 (雲禪寺) * 현재 철거공사 진행중
謊糧墩(臺)	?	高唐전쟁 관련 설화 유전 (추정)
翠屏山	翠屏山	楊雄과 石秀 석상, 安祿山과 楊貴妃 사당
漁陽橋	州河(?)	永濟橋, 漁水, 龍池河, 楊妃廟, 祿山祠
薊州	薊州區 (天津市)	역관 初行禮
獨樂寺	獨樂寺	臥佛寺, 白塔, 眼藥
無終山	府君山(추정)	燕昭王 무덤 (추정)
盤山 (崆峒山)	盤山	空同山, 건륭황제 행궁, 1766년 홍대용 유람

고려포 다음의 큰 고을인 옥전(玉田) 역시 대부분의 사행이 오며가며 묵었던 곳이다. 옥전 지명은 효자 陽翁伯(양옹백)이 무종산(無終山) 밑에서 옥을 캐다는 설화에서 유래한다.<sup>74)</sup> 이 설화보다 사신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끈 것은 연소왕(燕昭王)이었다. 그는 황금대(黃金臺)를 설치하여 널리 천하의 인재들을 초빙했고, 악의(樂毅)와 소진(蘇秦) 등을 등용하여 변방 약소국인 연(燕)을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하나로 성장시켜, 초현납사(招賢納士)의 표상 군주로 꼽혀왔는데, 예로부터 그의 무덤이 무종산 위에 있다는 설이 전해져왔기 때문이다. 하여 사신들은 옥전에서 연소왕을 떠올리고 북경에서 황금대를 상상하곤 했다. 이러한 경향은 병자호란 이후 복수설치 의식과 만나면서 더 강해져, 연나라의 마지막 태자 단(丹)과 자객 형가(荊軻)가 자주 시문 속에 호출되었다.

74) 「仙傳拾遺」, 「太平廣記」 卷5.

잡풀 속 황금대에 석양은 저무는데	金臺無沒夕陽餘
천 년 옛 무덤도 무너져 형체 없네	古墓千秋只廢墟
지하에 혼백 있어 옛일 아니 잊었다면	地下有魂如念舊
악의의 편지 보며 눈물을 흘리리라	也應垂涕樂生書 <sup>75)</sup>

천고의 금대 사연 이제는 아득하여	千古金臺事渺茫
황량한 들판에는 조문객 하나 없네	荒原無客弔昭王
옥감을 입은 채로 황토에 묻혔으니	珠襦玉匣埋皇土
황혼녘 바람결에 백양목 슬피 운다	落日悲風響白楊 <sup>76)</sup>

이덕형(1608, 추정)과 허균(1615)의 시 두 수 모두 옥전에서 연소왕을 떠올리며 지은, 옛 영화와 지금 황량함의 대조를 통해 역사의 무상감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오랜 전란을 겪은 조선의 피폐한 상황도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시는 황금대 → 소왕 무덤의 외관 → 무덤 속 소왕의 순으로, 시상을 일으키고 받고 전환시키는 공통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차이는 결국(結句)에서 드러난다. 이덕형이 말한 악생(樂生)의 편지란, 소왕이 죽은 뒤 악의가 혜왕(惠王)에게 보낸 것을 가리킨다. 혜왕은 부왕의 충신인 악의를 의심하여 쓰지 않았고, 얼마 안 있어 연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소왕이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이다. 허균의 작품은 제왕의 시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복장과 저물녘 무덤 주위 백양목의 쓸쓸한 바람소리를 대조하여 허무감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시상을 맺고 있다. 시대마다 또 개인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행 시기 내내 연소왕은 옥전의 첫 번째 이미지였다. 연소왕의 사연은 신비로운 안개로 자욱한 「호질(虎叱)」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이다.<sup>77)</sup>

저녁에 옥전현(玉田縣)에 이르니 ① 무종산(無終山)이 있다. 혹은 이르기를, “② 연 소왕(燕昭王)의 사당이 이곳에 있었다.” 한다. 성중에 들어가서 한 점포를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 즈음에 어디서인지 ③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므로, 곧 정

75) 李德馨, 『玉田, 過燕昭王墓, 有感』, 『漢陰先生文稿』 卷1. 이덕형은 1592년, 1608년 두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위 시는 1608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76) 허균, 최강현 역주 (2005), 『玉田縣 2』. 3구의 주유옥감(珠襦玉匣)은 황제의 시신에 입히는 옷을 의미하는데, 옥감은 귀한 요금(瑤琴)이나 보검을 보관하는 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77) 「호질(虎叱)」의 미적 특질과 구성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승수(2005) 참조.

진사와 함께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낭각 아래에 젊은이 대여섯이 늘어 앉아서, 혹은 ④ 저와 피리를 불며 혹은 현악(絃樂)을 타는 이도 있다. 방 가운데에는 ⑤ 한 사람이 교의 위에 단정히 앉았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나 읊하는데, 얼굴이 제법 단아하고 나이는 선 남짓해 보이며 수염이 희끗희끗하다. (『열하일기』, 『관내정사』, 7월 28일 / 고전번역원)

옥전 시내에는 현재 옛 고루(鼓樓) 자리를 중심으로, 고루동서가(鼓樓東西街), 고루남북로(鼓樓南北路)가 정연하여 사신들이 거리를 거닐고 박지원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을 상상해볼 수 있다.<sup>78)</sup> 하지만 옥전에 있었다는 무종산과 연소왕의 무덤(사당) 위치는 종내 알려지지 않았다. 이덕형과 허균 시 속의 고묘(古墓)와 황원(荒原)은 상상의 풍경일 뿐이다. 설화를 제외하면,<sup>79)</sup> 아무런 기록이 없어 연소왕의 무덤은 연행사들은 물론 작금 중국 역사학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고대 무종국(無終國)이 있었던 곳은 옥전이 아니라 계주(薊州)이며 무종산과 연소왕 무덤 또한 계주에 있다는 기록, 그리고 계주에 전승되는 설화를 근거로 탐문한 결과, 계주 북쪽 부군산(府君山) 아래 백마천(白馬泉) 골짜기의 대형 봉토(封土)가 연소왕의 무덤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sup>80)</sup> 무종국의 위치가 계주임을 밝힌 것은 『일통지』(淸)이다.<sup>8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수께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옥전과 계주 사이 채정교(彩亭橋), 봉산점(蜂山店), 별산점(別鰲山店) 등의 지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사이 청조 성립 이후 연행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곳은, 자체적인 방어벽을 갖추고 일시 청군에 대항했다는 송가성(宋

78) 이덕형은 귀로에 옥전에 여선진(呂仙眞)과 조송설(趙松雪)의 제발이 적힌 옛 그림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일정에 쫓겨 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시로 표현한 적이 있다. (『玉田, 聞有古畫呂仙眞, 趙松雪題跋, 行忙不得見有作』, 위와 같은 곳) 『호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할 만한 증언이다.

79)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 권18에, 소왕 무덤 앞의 화표(華表)와 여우, 그리고 장화(張華)가 등장하는 설화가 실려 있다. 홍경모의 시에도 이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洪敬謨, 『槎上韻語·玉田縣』, 『稔石外史』)

80) 百度百科 ‘燕昭王’ 조에 등재되어 있는데, 학술논문으로는 보고된 바 없다. 『계현사지(薊賢史志)』 편찬 과정에서 제기된 견해로, 여기서 지목하는 장소는 부군산(府君山) 중턱 지도장원(至道莊園) 옆에 있다.

81) [『無終故城』 今薊州治。… 舊志皆以今玉田縣爲古無終, 今考玉田乃唐初析置之無終, 非漢縣也。](『欽定大清一統志』 卷6, 順天府 3) 홍경모도 위 시의 주에서 이 기록을 인용한 바 있다.

家城)이다. 송가성은 최근(2016년) 답사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현재 30명 정도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한다.<sup>82)</sup> 별산진에서 경합선(京哈線)을 벗어나 서북 쪽으로 갈라진 길로 접어들면 운천사촌(雲泉寺村)과 취병산(翠屏山)이 잇달아 나오는데, 여기가 사신들이 오갔던 옥전과 계주 사이 옛길이다. 16세기 초~18세기 말에 지어진 연행록에는 이 일대에 당태종이 쌓았다는 황량돈(謊糧墩(臺))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설과 지명 모두 찾아보기 힘들다. 취병산은 『수호전』에서 양웅(楊雄)과 석수(石秀)가 반교운(潘巧雲) 등을 죽이고 양산박으로 향했던 곳이다. 이런 까닭에 취병산 아래 석상(石像)이 있었는데, 이 석상이 양웅과 석수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두고 가십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계주성 동(남)쪽에 있었던 어양교(漁陽橋)의 위치는 오리무중인데, 지리 정황상 취병산 아래 옛길에서부터 계주성으로 이어지는 도중에 만나는 하나뿐인 물줄기 주하(州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어양교(동)와 오리고(五里橋)(서)는 각각 영제교(永濟橋)와 통교(通(廣濟)橋)라고도 하며, 계주성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던 다리인데, 그 옆에 있던 양비묘(楊妃廟)와 녹산사(祿山祠)가 한동안 화제였다. 기록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재구는 힘들지만, 최소한 어양교 양쪽에 양비묘와 녹산사가 쌍으로 있었고, 오리고 옆에도 작은 건물 안에 양비 소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12년 김창업과 최덕중의 기록에 처음 나타난다. 계주는 안록산(安祿山)이 755년 11월 군사를 일으킨 곳으로, 만당(晩唐)에는 유주(幽州) 일대에 안록산과 사사명(史思明)을 2성(聖)으로 추앙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sup>83)</sup> 그런데 18세기 이후 갑자기 안록산에다 양귀비 사당까지 등장한 것은 의아스러운 현상이다. 질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연행사들이 본 사당이나 소상이 진짜 양귀비와 안록산의 것이 맞는지? 현지의 지리지에는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왜 18세기에 등장하여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이와 관련하여 1676년 이서우(李瑞雨)가 지은 시 제목 『낭랑묘(娘娘廟)가 계주에 있는데, 세속에 전하기를 안록산이 세운 양비묘라고 한다』<sup>84)</sup>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통의 낭랑묘

82) 신춘호, 「담헌 홍대용이 들렀던 宋家城의 위치를 확인하다」, <http://cafe.daum.net/china-view>

83) 후지요지 마스미, 정병준 역(2003).

84) 李瑞雨, 「娘娘廟在薊, 俗傳祿山所立楊妃廟」, 『松坡集』卷3.

등이 와전되어 양비묘로 둔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비묘에 대한 기록이 주로 전문(傳聞)에 의거하고 있고, 누구 하나 그 편역이나 비문을 확인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에서도 당장은 연행록의 기록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sup>85)</sup>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보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계주는 고루(鼓樓)(복원)를 중심으로 문창가(文昌街)(동), 무정가(武定街)(서), 어양남로(漁陽南路), 어양북로(漁陽北路)가 정연하여 옛 성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 역대 황제들의 묘역인 동릉(東陵)이 동북쪽 40km 지점에 있어 황제들의 행차가 빈번했던 곳이며, 서문 가까이 남아있는 독락사(獨樂寺)는 중국 건축사의 절품 중 하나로 꼽힌다. 독락사는 추정 건축연대가 최고 수대(隨代)까지 올라가며, 보통 당풍요건(唐風遼建)으로 간주된다.<sup>86)</sup> 독락사의 연혁에 대한 우리 기록으로는 서호수의 『연행기』(1790)가 근래의 연구 성과에 비견될 만큼 상세한데, 수행원인 유득공, 박제가, 이희경의 힘으로 여겨진다. 1609년 독락사에 들른 유몽인은 7수의 시를 시주하였는데, 모두 “東國之人願往生, 中原 …”으로 시작한다. 중원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일종의 발원인 셈이다. 자기 문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고, 중원 문인과 학식과 문장을 겨뤄보는 것이 평생 원이었던 문사의 심사가 잘 보이는, 독락사에서 지어진 가장 독특한 작품이다.

## VI. 운하(運河)의 장관과 제도(帝都)의 기운, 계주(薊州) - 통주(通州)

연행록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기타
五里橋	五里橋	廣濟橋, 通濟橋, 楊妃廟
邦均店	邦均鎮 (天津市 薊州區)	바늘 산지
白澗店, 香花庵	白澗村	白澗衛生所 골목, 향화암, 행궁 터는 모두 민가

85) 丁連學, 『薊州曾有“貴妃祠”』, 『今晚報』(2017. 4. 5.), [http://epaper.jwb.com.cn/jwb/html/2017-04/05/content\\_12\\_8.htm](http://epaper.jwb.com.cn/jwb/html/2017-04/05/content_12_8.htm)

86) 독락사의 건축사적 가치는 193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와 梁思城에 의해 발견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丁焘(2013) 참조. 독락사의 연혁은 韓嘉谷(1986)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三河縣	三河市	朝鮮館, 孫有義
夏店	夏塾鎮	'店'과 '塾'의 현재 발음 같음 [diàn]
燕郊堡	燕郊鎮 (三河市)	
潞河	北運河	白河, 通州河 * 潮白河
通州	北京市 通州區	東關大橋

계주에서 묵을 경우 이튿날은 방균점(邦均店)에서 점심을 먹고 삼하현(三河縣)에서 자는 것이 대개의 여정이었다. 방균(邦均)의 지명 기원은 세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당태종의 동정(東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원래 이름은 '군사를 도와준다는 뜻'의 방군(幫軍)이었다고 한다. 이 곳은 바늘이 유명하여, 사행단 중에는 짐바리로 하나씩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sup>87)</sup> 중후소(中後所)의 털모자, 무녕의 부채, 풍운의 서책처럼, 방균은 조선 사행에 의해 대량 구매가 이루어진 바늘의 특산지였던 것이다. 이곳은 16세기 초 소세양이 찾았을 때 이미 점포들이 줄을 지었고 온갖 장사치들 소리가 요란했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sup>88)</sup> GI02공로 북쪽, 방균의원(邦均醫院) 앞에 동서로 난 길이 옛날 점포와 객점이 몰려있던 거리이다.

삼동에 먼 길 가니 살쩍은 희어지나	三冬行邁鬢成斑
아름다운 곳에선 웃음 절로 지어진다	佳處欣然却解顏
요동별 다 끝나자 계주별 나타나고	遼野窮來仍薊野
여산을 지나오니 또 다시 반산이라	闔山過後又盤山
어지러운 수레자국 황도(皇都)가 가까우니	輪蹄交織皇都近
북소리 아니 울려 수졸도 한가롭네	鼙鼓無聲戍卒閒
천고의 흥망성쇠 큰 형국 살펴보니	千古興衰觀大局
중화니 오랑캐니 하늘은 관심 없네	天心不在夏夷間 <sup>89)</sup>

홍경모가 1830년 방균점에서 말을 먹이며 지은 시이다. 2구의 '佳處'란 다음 아닌 방균이겠다. 별관 건너 다시 별관에 서고, 산을 지나 다시 산 앞

87) “朝飯于邦均店, 此店乃針店也. 李彩身死之後, 所謂苗哥者傳其業, 他人圖印苗標, 通稱苗針, 而行中多買者, 或至一駄, 萬介之價, 二兩八錢銀云矣.”(崔德中, 『燕行錄』 2月 17日)

88) “邦均店裏日正午, 列肆槐陰喧百賈. 下馬少憩道觀中, 時有清風自開戶.”(蘇世讓, 『午飯邦均店』(1533), 『陽谷集』 卷3)

89) 洪敬謨, 『槎上韻語·午秣房均店』, 『耘石外史』.

에 앉아보니, 어느새 황도가 가까운데, 태평세월이 오랜지라 수졸들도 할 일이 없다. 자외(字外) 행간(行間)에는 시장 분위기가 떠들썩하고, 사람들의 복색과 표정에는 누추한 기색이 없다. 태평 성시 속에서 역사의 큰 흐름을 돌이켜보니, 중화와 이적(夷狄)을 우열(優劣)과 시비(是非)로 둘을 나누는 태도는 모두 틀린 것이었다. 이는 방군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면서 얻은 깨달음이라 할 만하다.

716년에 처음 설치된 삼하(三河)는 세 하천이 있어 생긴 이름인데, 세 물줄기는 구하(洵河)와 여하(洳河), 그리고 포구하(鮑邱河)라는 게 통설이다.<sup>90)</sup> 이중 구하는 고을 동쪽에 있어 연행사들이 오가면 건넌던 물줄기이다. 구하가 현성을 서 → 동 → 남 방향으로 흐르고, 구하의 지류인 홍낭항(紅娘港)이 서 → 동으로 흘러, 현성의 동남쪽에서 만나 남쪽으로 흐른다. 세 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다. 지명 동관촌(東關村), 남관교(南關橋) 등을 기준으로 옛 현성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김창업의 증언에 따르면, 1712년 당시 동문 안에 ‘朝鮮館’ 편액이 걸린 대규모의 찰원이 있었다고 한다.<sup>91)</sup>

삼하를 지난 기록은 14세기 이색의 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766년 3월 귀로의 홍대용은 이곳에서 등문헌(鄧文軒)과 손유의(孫有義)를 만나 교류하였다.<sup>92)</sup> 등문헌은 두 차례나 눈물을 글썽이며 아쉬워했고, 손유의와는 이후 10여 년이나 서신을 주고받았으니, 만남은 짧았지만 우정이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삼하에서부터 통주까지는 하루, 북경까지는 하루 반 여정밖에 되지 않는다. 고단한 여정이 일단 마무리된다는 안도감, 문명의 중심으로 다가간다는 기대감으로, 삼하를 출발하는 사행의 정서는 매우 경쾌할 때가 많았다.

짐 꾸리고 경전(更箭)을 초루에 전달하니    打包更箭尙傳譙  
 신경(神京)에 닿는지라 말 또한 씩씩하네    行近神京馬亦驕<sup>93)</sup>

90) 삼하(三河)의 연혁에 대해서는 『삼하현지(三河縣志)』(1988)의 48~49면, 57면 참조.

91) 金昌業, 『燕行日記』 卷3 12月 25日.

92) 洪大容, 『燕記』, 『湛軒書』 外集 卷7.

93) 鄭士龍, 『朝天錄』·三河早發, (1534), 『湖陰雜稿』 卷2. ‘更箭’은 물시계의 초침, 또는 조선 후기 순라꾼들이 상호 표식으로 삼은 화살을 뜻한다. 여기서는 후자로 번역하였다.

신주(神州)로 향하면서 발걸음 빨라지니      客程轉向神州快  
 요동과 장성 요새 이득히 멀어졌네      眞背全遼並塞墻<sup>94)</sup>

북경 입성 전 마지막 도회는 운하의 도시 통주(通州)였다. 청말(清末) 운하 운행이 폐지되기까지, 만국이 조회하러 오고 4해 9주의 온갖 물산이 운집하는 이 곳의 조운(漕運)은 통주의 상징이었다.<sup>95)</sup> 지명 또한 조운이 천하에 통한다 하여 생긴 것이다.<sup>96)</sup> 통주에는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 외에도 건립 시기와 목적이 조금씩 다른 다섯 갈래의 인공 운하가 있었다.<sup>97)</sup> 원대 이후 해마다 동남지역에서 북경으로 공급되는 수백만 석의 곡물은 해운과 하운을 막론하고 모두 천진을 거쳐 북운하를 경유하여 통주에 이른 뒤, 북경과 통주 창저(倉儲)에 나누어 보관되었다.<sup>98)</sup> 1528년 통혜하(通惠河) 수로가 완공되면서 조운의 중심의 장가만(張家灣)에서 통주로 이동하였으며, 물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별개의 나루[碼頭]가 운영되었다.<sup>99)</sup> 그 전에는 7,8월 강우량이 많을 때만 통주성 아래까지 수운이 가능했다. 북경으로 들어가는 통혜하는 이조하(裏漕河), 노하(潞河)는 외조하(外漕河)로 일컬어졌다. 건륭 38년(1773) 이후 운하수도에 변화가 일어나 통혜하 수로 운영이 불가능해졌다.<sup>100)</sup>

우리 문헌에서 통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초 진화(陳渾)의 시이다.<sup>101)</sup> 이로부터 100년 뒤 원나라 전성기 이색의 시에는 운하를 통해 남방의 미곡은 물론, 바다 밖 특산물도 모이는 풍경이 이미 익숙하게 그려지기

94) 崔崑, 『甲午行錄·向通州』(1594), 『簡易集』 卷7.

95) 雍正帝(雍正帝)는 『어제통주석도비(御制通州石道碑)』에서 통주를 이렇게 묘사했다. “潞河爲萬國朝宗之地, 四海九州歲致百貨, 千櫓萬艘, 輻輳雲集, 商賈行旅梯山航海而至者, 車轂織路, 相望於道, 蓋倉庾之都會而水路之冲達也.”

96) “即天下通漕之處也, 通州之稱, 亦以是云.”(李宜顯, 『庚子燕行雜識』, 『陶谷集』 卷29)

97) 蘇光興·田永君(2003).

98) 王永謙(1983).

99) 石垣碼頭(통주성 북문 밖 통혜하와 북운하가 만나는 곳, 북경 倉儲(內倉)로 운송)와 土垣碼頭(통주성 동문 밖 운하 西岸, 통주 倉儲(外倉)에 보관), 그리고 민간 상선들을 위한 碼頭(土垣碼頭 남쪽).

100) 陳喜波·鄧輝(2016).

101) 陳渾, 『使金, 通州九日』, 『梅湖遺稿』. 진화의 등계 시기가 1215년이고, 금나라가 1234년에 멸망했는데, 그 사이 금의 수도는 개봉(開封)이었다. 이 시는 그 사이 운하를 이용하여 개봉으로 가기 위해 통주에 머무는 중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시작한다.<sup>102)</sup> 이후 통주 풍경은 수많은 시문으로 재현되며 연행의 대표적 인 장관으로 꼽혔다.

한 줄기 긴 물결이 경기로 이어지니	一帶長河控帝畿
조운선 상선들이 이끌리듯 몰려드네	漕舫商舶此來歸
높이 솟은 돛대들 묶은 듯 뻗어하고	危檣簇立多如束
그림배들 이어져 끝 아니 보이누나	畫鷁遙連望轉迷
만국은 사방에서 특산물을 가져오고	萬國方來輸土貢
여러 겹 통역 거쳐 천자를 알현하네	幾人重譯覲天威
태평성대 기상을 그대는 기억하게	太平氣像君須記
쌀 한 말 서푼 함은 예부터 드물어라	斗米三錢古亦稀 <sup>103)</sup>

1459년 이승소의 눈에 포착된 통주 운하 풍경인데, 이러한 풍경은 19세기 연행사들의 시문에까지 지속된다. 통주 운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포착되었다. 누군가는 여기서 운하 수로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가기도 했고,<sup>104)</sup> 누군가는 배 위 올라 남방의 진귀한 물산들을 구경했고,<sup>105)</sup> 누군가는 동정호 악양루에 오르고 구의산(九巖山)에서 배를 띄워 상강(湘江)에 이르는 꿈을 꾸었고,<sup>106)</sup> 누군가는 남방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호(西湖) 풍경을 상상했고,<sup>107)</sup> 누군가는 일본 오사카와 그 변화상을 견주었으며,<sup>108)</sup> 누군가는 통주역참 벽 위에 적힌 안남(安南) 사신의 시에 차운하며

102) “… 檣鳥接翅桃花漲，穩送番商入鳳城。”(李穡, 『通州早發』, 『牧隱詩藁』 卷2); “南國珠犀入帝都，畫舫無數照通衢。”(李穡, 『通州 2』, 『牧隱詩藁』 卷2); “車馬飛塵陣陣來，通州米斛似山堆。誰知使者求花石，帆影隨風海上回。”(李穡, 『途中』, 『牧隱詩藁』 卷3)

103) 李承召, 『望潞河漕舫，連亘百餘里』, 『三灘集』 卷2. 제8구의 ‘斗米三錢’은 정관(貞觀) 4년(630)에 대풍에 쌀값이 크게 내려간 데서 나온 말로, 물산이 풍부하여 값이 비싸지 않음을 뜻한다.

104) 權近, 『奉使錄·是日到通州，通津驛發船，古之桑乾渡，今謂之白河，亦名潞河』, 『陽村集』 卷6.

105) 趙文命, 『通州江有福建暹羅船，滿載進貢花鳥，上船見之，取其知名者各賦一絕』, 『鶴巖集』 冊2.

106) “… 元龍豪氣隘九州，一豁萬古幽脩腸。散髮枕風臥長牀，夢中逸翮凌蒼蒼。南遊洞庭登岳陽，便從九疑浮三湘。二十五絃不勝清，歸來日暮川無梁。塔鈴喚我忽欠伸，還臥當時五雲鄉。”(洪貴達, 『登通州驛門樓』, 『虛白先生續集』 卷4)

107) “有客樂舟到夕陽，自言嫁娶住蘇杭。南朝寺外鐘聲遠，西子湖頭樹影長。萬里生涯春水宅，一天魂夢白鷗鄉。三韓使者腸堪斷，回首烟波入杳茫。”(朴齊家, 『東潞河，餽鮑紫卿』, 『貞菴閣初集』)

108) “昔年我作桑海遊，大坂城頭繫客舟。今年我躡北燕路，通州館裏停行軸。… 中冬節候適相合，

가보지 못한 먼 나라를 간접 체험하기도 했다.<sup>109)</sup> 국제 교류가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고, 중국의 경우도 북경까지로 제한되었던 시기, 통주운하는 중국의 문물을 관찰하는 데서 나아가, 그 길로 이어진 남방의 여러 세계와 문물을 체험하고 상상하는 장소였다.

이제 북운하를 가득 메웠던 조운선 상선들은 보이지 않고, 남방의 미곡들을 하역하던 부두(碼頭)는 사라졌으며, 조선 사신들을 보내고 맞이하던 통주성의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통주성 북쪽에 서있는 고탑(古塔) 한 기뿐. 사신들이 배를 타고 건넌던 (겨울에는 얼음 위로) 물 위에는 동관대교(東關大橋)가 놓여있다. 동관대교 서쪽 강안(江岸)이 土垣(土垣)가 있던 곳이다. 통주 노하(潞河)를 건넌으니 북경까지 남은 여정은 한나절뿐이다.

## VII. 맺음말

산해관에서 통주까지의 거리는 630리(홍대용 기준)였다. 기후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산해관과 통주에서 묵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날짜가 똑 떨어지지 않지만, 소요 시일은 대략 8, 9일이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온 연행록에서 10개의 사례에서 숙소로 가장 많이 이용된 곳은 풍운(10회)이며, 영평(9회) · 옥전(8회) · 사하역(6회) · 계주(6회) · 삼하(6회) · 통주(6회) · 홍화점(5회), 유관(5회) 등도 숙박지로 자주 이용되었다. 표본이 적어 통계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대략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이중 영평과 사하역 사이의 이동 거리는 다른 구간의 평균 거리에 비해 7, 8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체묘가 있어 참배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옛 지명 대부분이 G102 경합선 공로 연변에 남아있어, 연행로 재구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산해관-통주 구간의 전 여정 대략 아래와 같다.

兩地繁華誰最雄 …”(南龍翼, 『燕行錄·通州歌』, 『壺谷集』卷12)

109) “伯氏(金安國), 戊寅年(1518)以謝恩使赴京回還, 語余曰, 通州潞河驛門樓壁上, 安南國使臣題詩曰, …”(金正國, 『摭言』, 『思齋集』卷4)

사신	시기	숙박지	출처	소요시일
權檉	1539	遷安驛, 深河驛, 撫寧縣, 永平府, 永濟驛(豐潤), 陽樊驛(玉田), 洵陽驛, 三河, 觀音寺(악천후), 通州	沖齋集, 朝天錄	10박 11일
許筭	1574	山海關, 深河驛, 撫寧, 永平, 義豐驛(豐潤), 陽樊驛, 三河驛, 通州	荷谷集, 朝天記	8박 9일
李潛	1656	산해관, 유관, 영평 서관, 사하역, 풍운, 옥전, 계주, 삼하, 통주	연도기행	9박 10일
鄭太和	1662	山海關, 玉關店(榆關), 永平, 沙河驛, 豐潤, 玉田, 薊州, 三河, 通州	陽坡遺稿, 飲水錄	9박 10일
김창업	1712	유관, 영평, 사하역, 풍운, 옥전, 계주, 삼하, 통주	연행일기	8박 9일
홍대용	1765	유관, 영평, 沙河堡, 풍운, 옥전, 계주, 삼하, 통주	담헌서, 연기	8박 9일
박지원	1780	유관, 영평, 沙河驛, 풍운, 옥전, 房均, 燕郊堡	열하일기	7박 8일
서유문	1798	홍화점, 노봉구역, 사하역, 풍운, 옥전, 방균점, 연교보	무오연행록	8박 9일
김경선	1832	홍화점, 무녕현, 영평부, 沙河驛, 풍운현, 옥전현, 燕郊堡	연원직지	8박 9일
서경순	1855	홍화점, 무녕, 영평, 사하역, 풍운, 옥전, 계주, 棗林莊	몽경당일사	7박 8일

연행로는 과거의 길이면서 오늘날 역동하는 길이고, 특정 시기 우리의 특수한 지리공간이기에 앞서 수천 년을 이어온 그들의 생존과 역사의 현장이다. 따라서 연행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금(古今)과 피아(彼我)를 아우르는 시야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편협한 시야에 갇히지 않기 위해 최근 현지의 역사지리 관련 연구 성과를 심분 참조했는데, 그 도움으로 약간이나마 평면적인 기술을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화성의 위치, 갈석산의 의의, 고려포의 비밀, 취병산 옛길 등에 접근한 것은 이 논문의 작은 성과이다. 그럼에도 어양교의 위치, 양비묘의 종적 등 여러 문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으며, 아예 거론조차 못한 사안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논문은 끊어진 부분이 있는 대로 연행로의 선을 복원하고, 몇몇 점의 위치를 밝혀냈으며, 3차원의 지리공간에 남은 무형의 마음 자취를 찾아본 결과이다. 이 논문의 더 정교한 지식의 토대가 되고, 창의적인 연구 및 건강한 역사 이해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차 사료는 각주로 대신함.

### 1. 단행본

허균, 최강현 역주, 『을병조친록』, 국립중앙도서관, 2005.

후지요지 마스미, 정병준 역, 『비단버선은 흙먼지 소에 뒹굴고』, 시공사, 2003.

黃斌·劉厚生, 『箕氏朝鮮史話』, 遠方出版社, 2007.

黃斌·張春萍, 『薛禮征東의史實與傳說』, 遠方出版社, 2008.

### 2. 논문

김갑주, 「丙子胡亂 後 對清貢女考」, 『동국사학』 제14집, 동국사학회, 1980, 27~51면.

김민호, 「『豆棚閑話』 第7則 <首陽山叔齊變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제22집, 중국어문연구회, 2002, 313~329면.

\_\_\_\_\_, 「系譜學的 側面에서 接近한 伯夷·叔齊 故事 研究」, 『중국소설논총』 제16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2, 39~54면.

김새미오, 「연천 홍석주의 연행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 제30집, 동방한문학회, 2006, 315~339면.

김선민, 「朝鮮通事 굴마훈, 淸譯 鄭命壽」, 『명청사연구』 제41집, 명청사학회, 2014, 37~65면.

윤주필, 「진란의 상처 ‘잡혀간 여자’의 기억 - 연행길의 진자점 계문란 사적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추모의식」, 『한국한문학연구』 제61집, 한국한문학회, 2016, 258~296면.

이승수, 「吳兆騫과 寧古塔, 그리고 조선」, 『한국언어문화』 제6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87~118면.

\_\_\_\_\_, 「요동지역 고구려 관련 설화의 문헌 및 현장 조사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9, 309~343면.

林津羽, 「無名·匿名與暴力書寫 - 明末清初女性題壁詩之研究」, 대만정치대학 석사 학위논문, 2008, 1~143면.

蘇光興·田永君, 「通州運河知多少」, 『北京檔案』 第9期, 2003, 48~49면.

宋蒼松, 「曹操東臨“碣石”到底在哪」, 『中華讀書報』, 2015, 1~3면.

楊海英, 「朝鮮士大夫의季文蘭情結和清初被擄女人的運命」, 『淸史論叢』, 2007, 1~

31면.

王得成, 「中朝, 中韓交往的重要驛站-高麗鋪」, 『河北學刊』, 1995, 111면.

王永謙, 「清代乾隆中晚期的潞河漕運 - 『潞河督運圖卷』의 初步研究」, 『中國역사박물관』, 1983, 113~118면.

任乃宏, 「“碣石” 新考」, 『文物春秋』, 2014, 14~19면.

丁垚, 「發現獨樂寺」, 『建築學報』, 2013, 1~9면.

趙志強, 「孤竹國夷齊及相關問題研究」, 『寧夏大學學報』, 제38집, 2016, 62~66면.

陳喜波·鄧輝, 「明清北京通州城漕運碼頭與運河漕運之關係」, 『中國역사지리논총』, 제31집, 2016, 69~77면.

韓嘉谷, 「獨樂寺史迹考」, 『北方文物』, 1986, 50~56면.

黃普基, 「“心存卽爲鄉”清代朝鮮使者對高麗鋪歷史的構建」, 『사회과학』, 2013, 155~163면.

### 3. 기타

신춘호, 「담헌 홍대용이 들렀던 宋家城의 위치를 확인하다」, <http://cafe.daum.net/chinaview>

丁連舉, 「薊州曾有“貴妃祠”」, 『今晚報』(2017.4.5.), [http://epaper.jwb.com.cn/jwb/html/2017-04/05/content\\_12\\_8.htm](http://epaper.jwb.com.cn/jwb/html/2017-04/05/content_12_8.htm)

## Geography of the Route of Diplomatic Envoy to Beijing and Marks of Mind along the Route

-Section from Sanhaegwan(山海關) to Tongju(通州)-

Lee, Seung-Su

This paper investigated the geography of the section from Sanhaegwan to Tongju in the route of diplomatic envoy to Beijing and deliberated the marks of mind of a Joseon intellectual who was nameless in this space. Sanhaegwan was the eastern gate of Jangseong which was the passage of civilization as well as the border between Chinese and other ethnic group since Ming dynasty. It's about 300km from Sanhaegwan to Beijing and took about 9 days for the diplomatic envoy to move from Sanhaegwan to Beijing. The section was the passage of civilization where human and material exchange was actively executed as excitement and emotion from approach to the center of civilization was heightened and expansion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intellectual growth were appreciated through the experience of new culture. The substantial part of ancient road coincides with the public Jingha(京哈) railway G102 at present. The area was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past so that the city flourished and civilization was developed. For efficient discussion, the entire section was divided into five parts: Sanhaegwan(山海關)-Munyeong(撫寧)-Yeongpyeong(永平)-Pungyun(豐潤)-Gyeju(薊州)-Tongju(通州). Through the discussion, most parts were restored and several spots were identified. Furthermore, the interests of envoys per spot which were generally observed beyond times and individuals were analyzed to emphasize that the section was not simply the stagnant relics from the ancient times but historic site which was still filled with vitality. This paper tried to keep the extensive and dimensional viewpoint overlooking the entire route of diplomatic envoy by reflecting the research results related to historic geography in the region as much as possible. The attitude of this paper will be generally required for further study.

keywords: Sanhaegwan(山海關), Galseoksan(碣石山), YiJemyo(夷齊廟), Goryeopo  
(高麗鋪), Gyeju(薊州), Tongju(通州).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 ~ 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